

세계의 살기 좋은 도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항구의 아름다운 모습.

글·사진: 허용선(건강 칼럼리스트)

세계의 살기 좋은 도시

세계의 아름다운 항구 3곳은 바로 이탈리아의 나폴리,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이다. 보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르겠지만 이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로 리우데자네이루를 꼽는 사람이 많다.

리우데자네이루는 브라질에서 으뜸가는 항구도시로, 1763년부터 1960년에 걸쳐서 브라질의 수도였던 곳이다. 자연미와 인공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리우데자네이루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우카니발이 해마다 열리고, 자연 경관이 뛰어나 오래전부터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했다. 리우데자네이루는 '1월의 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1502년 1월 한 포르투갈 사람이 이곳을 발견하곤 붙인 이름을 현재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 년 중 1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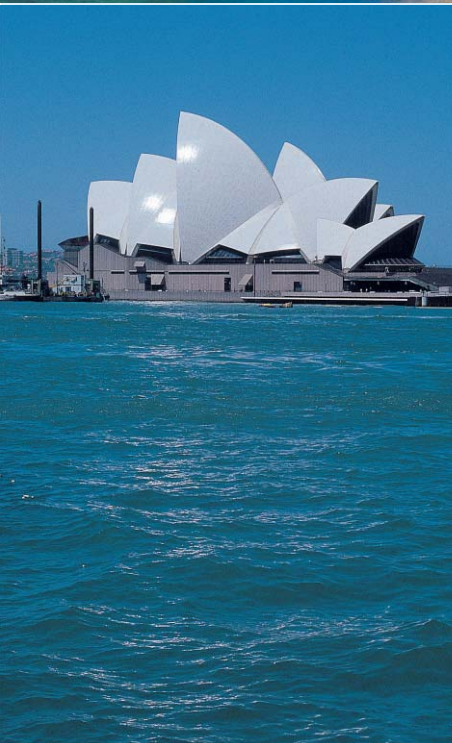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망 데 아수카르도 올라가는 케이블카.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해마다 열리는 삼바축제 때 열정적인 춤을 추는 무희들.



◀ 호주 시드니/항구 야경 모습.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시드니 항구를 아름답게 만드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호주 시드니/항구에 자리한 거대한 하버 브리지.



▲호주 시드니/자연과 인공이 멋진 균형을 이루고 있는 세계3대 미항 중 하나인 시드니의 모습.

가장 아름답다고 한다.

리우데자네이루의 시가지는 코파카바나, 이파네마 해안을 따라 길게 뻗어 있다. 코파카바나 해변은 대서양을 향해 활처럼 구부러진 해안선에 자리잡고 있으며 주위에는 고층빌딩이 무척 많다. 항구 입구에는 팡 데 아수카르라고 부르는 약 400m 높이의 바위산이 우뚝 솟아 있다. 처음 방문하는 도시에서는 가장 먼저 높은 곳에 올라가 주변 전망을 보는 것을 좋아하므로 리우데자네이루에서도 해발 400m 높이의 팡데아수카르(인디언어로 '작은 섬'이라는 뜻)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랐다. 럭비공을 세로로 세워 놓은 것과 같은 모습을 한 단단한 바위산으로 언덕 남쪽에는 우르카 해안이 고즈넉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니 구부러진 대서양 해안과 도로에 늘어선 고층건물들이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밤에 홀로 거리를 걷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여 이른 아침에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한 코파카바나 해변을 산책했다. 모자이크 무늬의 산책로가 인상적인 곳인데 밤에는 가로등이, 낮에는 야자수 나무가 해변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곳이다. 새벽부터 조강하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오후에는 수영을 즐기러 나온 피서객들로 해변이 만원이다.

시내에 자리한 식물원에는 약 5,00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사람들로 붐비지 않는 식물원에서 새들의 지저귀는 노랫소리를 들으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삼림욕을 즐기는 사람이 많았다. 이곳에는 600여 종의 난초와 아마존 강의 희귀한 식물들을 볼 수 있다.



▲ 나폴리 항구 곁에 늘어난 유서깊은 주택들.

시드니는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로 세계적인 환경단체에서 해마다 세계의 살기좋은 곳으로 선정하는 곳이다. 이처럼 시드니가 살기좋은 도시로 선정되는 이유는 자연미와 인공미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 높이 치솟은 마천루와 중세풍 건물들의 멋진 조화, 섬나라의 낭만과 시민들의 삶의 여유. 도시 곳곳에 펼쳐져 있는 녹음으로 우거진 공원 등이 이 거대한 도시를 맛깔스런 모습으로 만든다.

시드니를 찾는 이유는 천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자연환경을 빼놓을 수 없다. 남태평양이 내륙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곳곳에 그림같은 만(灣)과 곳을 이룬 모습은 장관이다. 일요일 시드니 항구 앞바다에는 요트나 윈드서핑, 수상스키 등을 즐기는 시민들이 많고 해변마다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 또한 많다.

시드니의 명물은 오페라하우스이다. 시드니에서 으뜸가는 상징적인 건물로, 덴마크에 존 우트존에 의해 설계된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기하학적인 건축미가 돋보이는 오페라하우스가 완성된 후 예술의 전당으로서 호주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드높여 주었다. 마치 조개 껍질을 포개어 놓은 듯한 오페라하우스는 2천 7백 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오페라 극장을 비롯하여 드라마 극장·영화관·음악스튜디오·아트 갤러리 등이 자리한다.

거의 매일 시드니가 자랑하는 풍부한 문화적 레퍼터리 영화·발레·연극·클래식 음악·오페라·록 콘서트가 이곳에서 공연된다. 강렬한 태양 아래 조가비 모양의 몸체에서 흰 빛을 발산하는 오페라 하우스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이다.

시드니 수족관은 흥미로운 곳이었다. 이곳에선 어른보다도 큰 상어를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었는데 살아있는 상어의 날카로운 눈과 치아를 처음으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 신기했다. 부산하게 바다 위를 오가는 선박들, 오페라하우스의 흰 지붕, 시드니 수족관의 거대한 상어, 드넓은 녹색공원과 질푸른 바다 등 아름다운 시드니를 연상시키는 장면들이 먼 훗날에도 한동안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갔다.

나폴리는 푸른 바다와 태양이 눈부신 산타루치아의 고향이다. 남부 이탈리아 캄파니아 주의 행정 중심도시로, 평균 기온이 섭씨 8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도시다. 나폴리 항구는 강렬한 태양이 비치고, 질푸른 바다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자주 펼쳐지는 곳이다. 독특한 나폴리 민요와 요리 등으로 세계에 잘 알려진 관광지이다.

나폴리는 이탈리아의 도시 가운데에서 날씨가 좋은 편이라, 고대 로마 시대에는 아우구스투스, 네로 황제 등이 즐겨 찾던 피서지였다. 오늘날 나폴리는 식료품, 섬유, 금속, 화학, 기계 같은 공업이 발달한 남부 이탈리아의 중심 도시다. 부근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 베수비오 화산과 폼페이도 자리한다. 